

##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 '패기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 펼쳐라'

### 금산인삼축제와 함께 열려

'패기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30회 금산인삼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지난 15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대회로 유튜브 특별 무대에서 개최됐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에서, 청소년동아리 문화발전과 21세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이번 대회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사장 류형선)이 주관했으며 국무총리실,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후원회 한상길(금산군 기업인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끼와 열정,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건강, 체험, 문화, 예술 교류의 동아리 축제마당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장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상 및 의회 의장상, 교육감상, 청소년기관장상 등 수많은 상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30여팀 17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쳤다.

중등부에서는 경남 김해시 진영중학교 진영중 오케스트라 칸타빌레 동아리가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과 동아리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패거를 이뤘으며, 초등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은 전남 장성군 진원초등학교 해피드림중창단 동아리가 수상 영광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은 댄스부



중등부 대상을 차지한 경남 김해시 진영중 오케스트라 칸타빌레 동아리(왼쪽)와 무대공연·전통문화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북 고창 남중 별솔하모니 동아리(오른쪽).



### 전국 230여팀 1700여명 참가 예술 교류 축제마당으로 진행 고창 남중 별솔하모니, 무대공연·전통문화부 최우수상 수상

에서는 경기 부천시일중학교의 ICT동아리, 무대공연·전통문화부에서는 전북 고창남중학교의 별솔하모니 동아리, 그룹사운드·음악부에서는 한국음악고등학교의 필그림 남성중창단 동아리, 전시체험·4차산업부에서는 부산동아고등학교의 피지컬컴퓨팅 동아리가 수상했다.

사전심사로 진행된 영상·영화부에서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콘텐츠제작단(스스로넷 소속 박정호)이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동아리 특별부문에서는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 카탈일동아리가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지도자 특별부

에서는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이조베이커리의 이삼민 지도교사가 충청남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매년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동아리들이 기다리고 참여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동아리 축제로, 이번 대회에도 전국에서 약 230여개 동아리가 신청해 1차 예선을 통해 44개 동아리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참가 동아리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청소년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열린 무대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에 참관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 김승곤 전북청소년동아리 연맹 총재 등 주최기관 청소년 관계자 및 심사위원들은 끼와 열정이 넘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찬사를 보냈으며, 앞으로 청소년 동아리문화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동아리활동이 어려웠음에도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한 청소년들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함께 연구해 동아리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앞으로 다양한 동아리문화 행사를 열고, 내년 제20회 경진대회는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세계 5대양주대주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무대로, 세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백제의 향기여 영원하라

#### 익산시,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 수상작 전시회... 유재은씨작 대상

익산시가 올해 개최한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에서 홍지선, 유재은 씨의 '백제의 향기여 영원하라'가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오는 21일 보석박물관에서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접수 기간을 거쳐 13일 심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에 홍지선, 유재은 씨의 '백제의 향기여 영원하라', 금상에 진윤선 씨의 '꿈의 빛', 이예지 씨의 '순안의 왕궁리 유적'을 포함해 은상 2점, 동상 4점, 특선 24점, 입선 19점까지 총 44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익산의 시조인 비둘기, 시화국화, 시목 소나무뿐만 아니라 백제왕도 유물 중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보살 손 및 보석박물관 건물, 영원한 빛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출품됐다.

또한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와 무드등, 생활장신구 등 역사문화관광상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실물 작품 부문과 디자인 렌더링 작품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됐다.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도시, 익산'의 특화된 귀금속·보석 산업의 우수성과 보석테마의 관광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우수한 귀금속 문화관광 상품을 수식,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전시회는 12월 25일까지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광길작 '연잎 이야기'

## 도예문화 우수성 세계에 널리

### 온라인 남원국제도예캠프 개최

남원에서는 2020 제9회 남원국제도예 캠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www.nica-camp.com/www.nicacamp.kr)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남원국제도예캠프는 420여년전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남원도공들을 추모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교류를 통해 남원도예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남원국제도예술연구센터(이사장 김광길)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터키 등 12개 국가 11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조선도공 한국의 혼을 빛내 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국내외 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을 필두로, 초대작가 워크숍, 초청특강, 물레경진대회 등이 이어지며, 특히, 17일 남원시민도에대학에서는 60여명이 참여하는 2020남원국제도예캠프 물레경진대회가 펼쳐졌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남원국제도예캠프가 남원도예문화에 있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이번 기획초대전은 12개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남원도예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도예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라는 여건을 제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더 많은 도예인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남원국제도예캠프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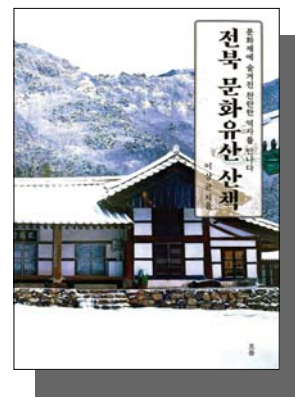
## '문화재에 숨겨진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 전주대 이상군 교수, 저서 '전북 문화유산 산책' 발간

전주대학교 이상군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유산이 지니는 특성과 의미를 풀어낸 '전북 문화유산 산책' 저서를 발간했다.

이번 저서는 전북 지역의 문화재를 매장문화, 고분문화, 불교문화, 성곽문화, 도요문화, 향교와 서원, 건축문화, 근대문화 편으로 나눠 기술했다.

특히 일반인과 관광객들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재를 선정했다. 또 학설에 편중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문



서 수준으로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글과 함께 사진, 도면 등으로 설명했다.

이상군 교수는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문화재 개설서를 간행함으로써 지역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군 교수는 2005년부터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주대박물관장과 인문대학장을 역임했으며, 전북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한국신석기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및 전북지역 문화재의 연구와 보존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21~22일까지

## 국악계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

### 판소리 등 경연... 춘향문화예술회관 등서 비대면·대면 병행

남원이 춘향국악대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47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21일부터 22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과 합마우소리체험관에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7번째 전통을 이어온 춘향국악대전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춘향제 기간에 열렸으며, 배출된 역대 명창 및 국악인들은 국악계의 최고 명인·명창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연 종목은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기악관악(일반부, 학생부), 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며, 심사자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전북도지사상 등이 수여되고,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국악인의 최고 영예인 '명창'의 호칭이 부여된다.

학생부 및 일반부 예선의 경우 비대면 동영상심사로 실시되며, 판소리 명창부 예·본선



및 일반부 본선에 한해 대면심사로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본선 대면 심사 시, 심사위원 및 경연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관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향제 홈페이지 내 춘향국악대전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63-620-5846~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 ▶ 공연·전시

#### '국악·발레로 선보이는 민비의 일생' 명성황후, 27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예술 단체 우수 작품 최소인 발레단의 '명성황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김제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발레극으로, 국악의 선율과 한국무용을 고전발레의 형식에 잘 녹여낸 것이 특징이며, 구한말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명성황후' 시혜사건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백성들의 군무,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율환효과 등 생생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한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2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